《主 題》

인터넷의 구성과 현황

하상용 · 송관호
(한국전산원)

□차 례□

Ⅰ. 개 요
Ⅱ. 국내외 인터넷 이용현황
Ⅲ. 인터넷 도메인 체계 및 현황
Ⅳ. 맺음말

Ⅰ. 개 요

근래 인터넷은 급속한 성장과 확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용현황 통계자료에 의해 대략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용현황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용자 통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수를 산출하는 호스트 통계, 그리고 도메인등록 통계가 있으며, 이외에 웹이용에 대한 것들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해 먼저 글로발 인터넷(세계)의 주요 통계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인터넷 통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의 주소로 사용되는 도메인관련 이들의 계층적 분류체계와 도메인이름 등록시의 주요원칙, 그리고 최근에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글로발 인터넷의 새로운 최상위 계층 도메인의 신규생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국내외 인터넷 이용현황

1. 국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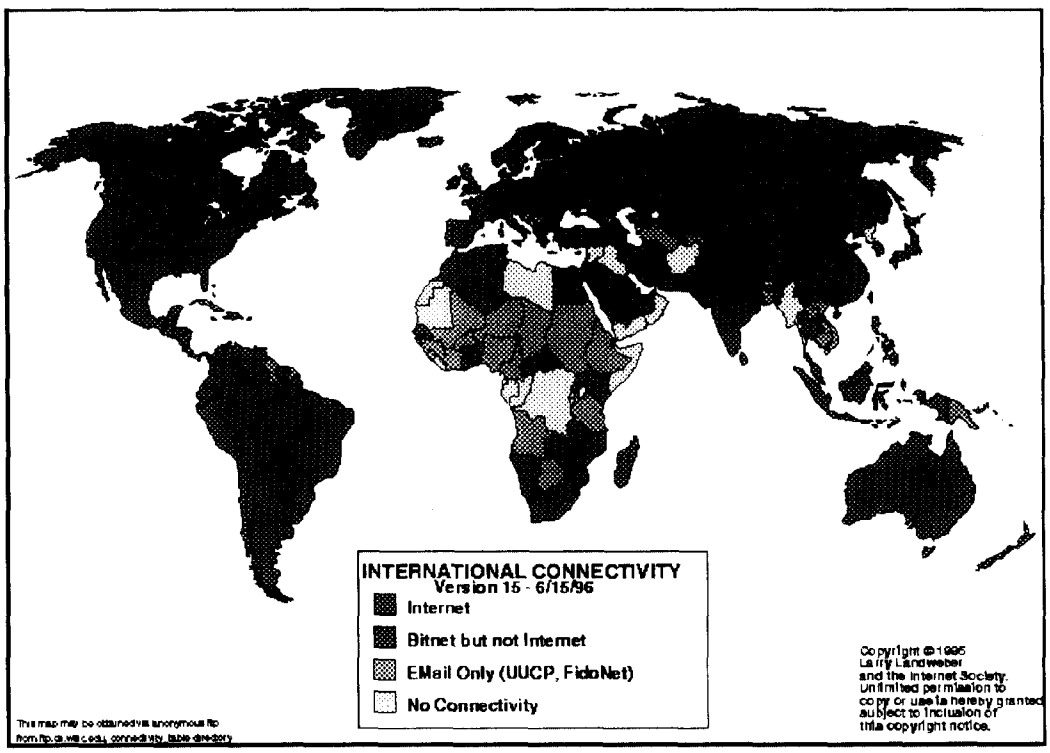
가. 국가별 인터넷 연결 현황

세계 각 나라별로 인터넷 연결현황은 글로발인터넷의 최상위 기관인 ISOC(Internet Society)이 만든 세계지도(<그림1>)에 나타나듯이 아프리카,아시아의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인터넷은 전세계의 거대한 전산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아직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과거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남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실었던 웹페이지는 미국의 대학 인터넷 웹서버를 이용한 것이었다.

나. 도메인 및 호스트 현황

도메인이나 호스트 현황은 글로발인터넷의 양적팽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1, 그림2,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도메인은 com, org, edu, net, int, mil과 같은 글로발 인터넷의 Top-Level 도메인과 ISO-3166의 국가분류 코드체계에 의한 국가별 Top-Level 도메인(한국은 .kr, 일본은 jp, 프랑스는 .fr 등)에 대한 것들을 모두 합한 전 세계의 모든 도메인에 대해 산출한 것이며, 호스트수는 인터넷 IP주소와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터넷 on-line 컴퓨터를 조사하는 도구를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조사 당시의 네트웍 문제, 중복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적 정확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통계자료 전문회사인 네트웍 위저드사가 자



〈 그림 1 〉 국가별 인터넷 연결 현황
URL : http://www.isoc.org/images/mapv15.gif

체 도구를 이용하여 '97년 1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의 도메인수는 824,791개, 호스트수는 16,146,36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표1 참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m 도메인은 507,513개로서 전세계 도메인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호스트수는 3,965,417개로서 전세계 호스트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자료출처 : http://www.nw.com).

전세계 대비 com도메인의 비율이 62%인데 반해 호스트수가 25%로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com도메인 등록절차나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com 도메인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산정하는 호스트수 집계에서는 이들이 계산되지 않는다. '97년 1월 기준으로 com도 메인의 약 31%인 225,989개의 도메인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그림 2 〉 글로발인터넷의 호스트수 증가 추세
(1989 ~ 1997 : 온라인 접속 참조)
URL:http://www.genmagic.com/Internet/Trends/slide-3.html

〈 그림 3 〉 글로발인터넷의 도메인수 증가 추세
(1991 ~ 1997 : 온라인 접속 참조)
URL:http://www.genmagic.com/Internet/Trends/slide-5.html

〈 표 1 〉 글로발인터넷의 호스트/도메인수 증가 추세
URL : http://www.nw.com/zone/WWW/report.html

날짜	호스트수	도메인수
Jan 97	16,146,000	828,000
Jul 96	12,881,000	488,000
Jan 96	9,472,000	240,000
Jul 95	6,642,000	120,000
Jan 95	4,852,000	71,000
Jul 94	3,212,000	46,000
Jan 94	2,217,000	30,000
Jul 93	1,776,000	26,000
Jan 93	1,313,000	21,000

다. 이용자 현황

인터넷 사용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가장 흔하게 던져지는 질문 중 하나지만 정확한 대답은 불가능하다. 네트웍위저드사의 경우도 인터넷 이용자수에 대한 집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96년 2월부터 7월까지 여섯가지의 각각 다른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9백만명에서 부터 4천5백만명까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추산하자면, 약 수천만에서 1억정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수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유형별/성격별 분류를 설문형태로 조사 분석한 자료도 이용현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전략과 마케팅관련 컨설턴트 회사인 Nua Ltd.가 '97년 1월 인터넷이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별 집계를 발표한 것에 의하면

첫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로서 미국의 경우는 집이 직장의 약 2배정도가 되며, 유럽의 경우는 직장이 집보다 좀 더 많았고,

둘째, 이용하는 웹 브라우저는 80대 20정도로 netscape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현격한 우위를 점했고,

셋째, 이용횟수로는 하루에 1번에서 4번정도가 약 30%를 차지했으며,

넷째, 성별분류를 보면 남성이 약 70%로서 여성보다 훨씬 많고, 미혼이 54%로 기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타 현황

인터넷 이용현황이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서 인터넷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웹 사이트의 증가추세에 대한 것과 인터넷 백본에서 측정한

주요 인터넷 서비스별 트래픽량을 들 수 있다.

먼저 웹사이트 증가추세는 〈표2〉에서 나타나듯이 웹사이트의 증가가 인터넷 호스트수의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 인터넷의 primary backbone 이었던 NSFNET이 1995년 4월 그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기 전까지 제공되었던 주요서비스별 트래픽 통계를 보면(표3 참조) 웹과 ftp가 거의 대부분의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웹이 ftp를 훨씬 앞질렀으리란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 국내 인터넷 현황

가. 국내 인터넷 연결 현황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간의 망 연결현황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 표 2 〉 웹 증가 추이

URL : http://www.mit.edu/people/mkgray/net/web-growth-summary.html

날짜	웹사이트 수	.com사이트 비율	호스트수/웹서버
'93. 6월	130	1.5	13,000
'93. 12월	623	4.6	3,475
'94. 6월	2,738	13.5	1,095
'94. 12월	10,022	18.3	451
'95. 6월	23,500	31.3	270
'96. 1월	100,000	50.0	94
'96. 6월	230,000	Not Available	41

〈 표 3 〉 인터넷 주요서비스별 트래픽 변화 동향('95년 NSFNET)

URL : http://www.mit.edu/people/mkgray/net/web-growth-summar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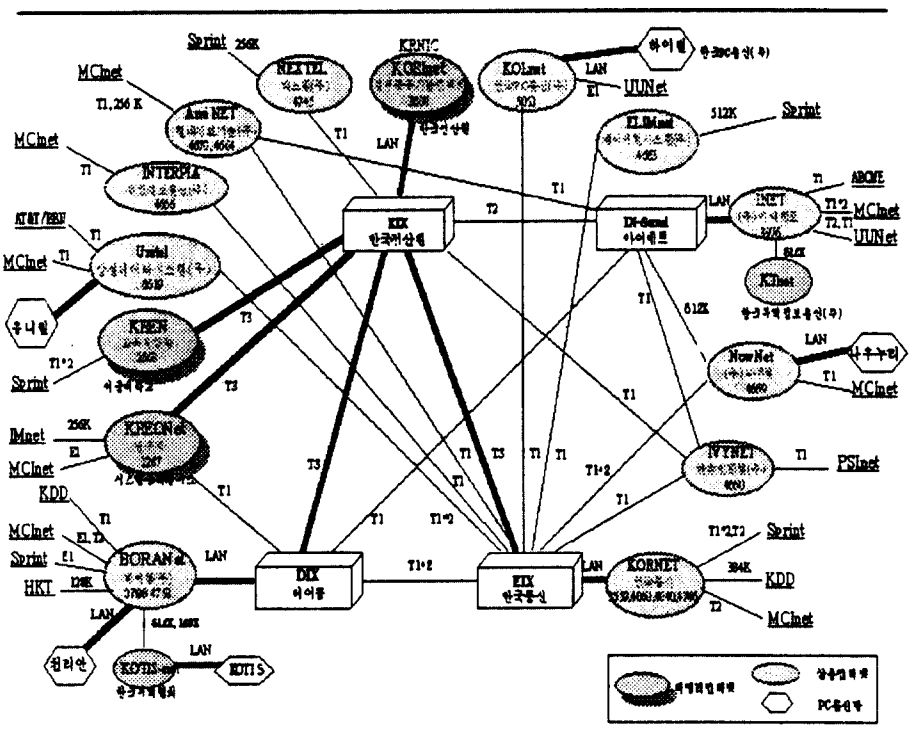
날짜	ftp(%)	telnet	netnews	irc	gopher	email	web
'93.6월	42.9	5.6	9.3	1.1	1.6	6.4	0.5
'93.12월	40.9	5.3	9.7	1.3	3.0	6.0	2.2
'94.6월	35.2	4.8	10.9	1.3	3.7	6.4	6.1
'94.12월	31.7	3.9	10.9	1.4	3.6	5.6	16.0
'95.3월	24.2	2.9	8.3	1.3	2.5	4.9	23.9

여기에 나타난 ISP들은 대부분이 해외 전용회선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의 일반 인터넷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전용회선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ISP들이다. 각 ISP들에 가입한 고객들간의 국내 트래픽에 대한 라우팅은 3개(KIX,DIX,EIX)의 주요 인터넷교환센타(IX, Internet Exchang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라우팅은 각 ISP들이 보유한 해외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 도메인 및 호스트 현황

국내 인터넷의 도메인과 호스트수 증가 현황은 〈그림3〉,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발인터넷과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국내 도메인이라는 것은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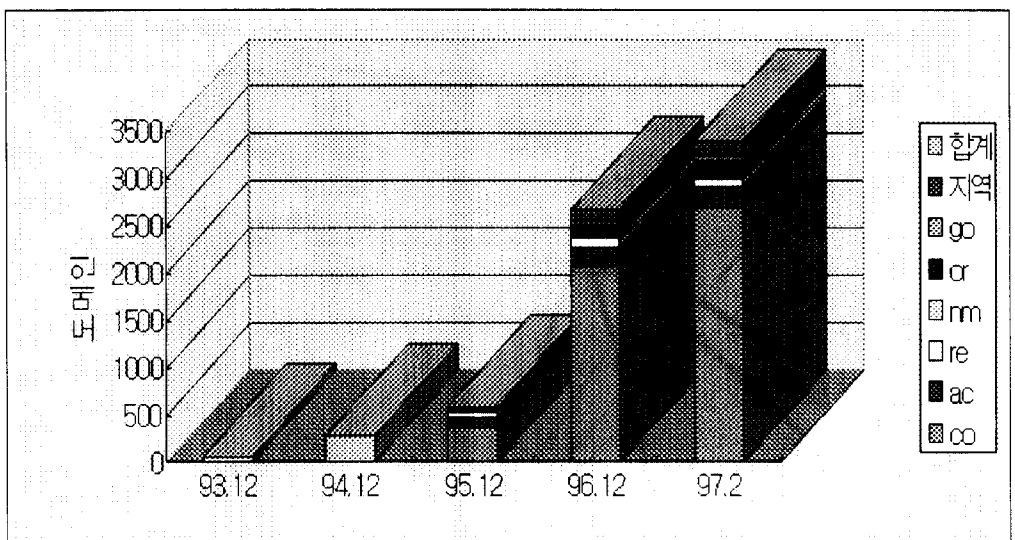
〈 그림 2 〉 국내 인터넷 망간 연결 현황도
URL : http://www.krnic.net/stats/connect9702.gif

이들 해외라인의 미국 접속점은 대부분이 SPRINT와 MCI회사로서, 국내의 각 ISP가 제각기 별도로 계약을 맺어 연결하고 있다. 이를 대용량의 회선으로 단일화하여 SPRINT나 MCI와 연결하고, 국내의 각 ISP는 필요한 만큼 이를 분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트래픽 및 라우팅, 경비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국내 ISP사업자간의 이해관계와 경쟁, 인터넷의 환경 급변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운 점이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운영하고 있는 .kr로 끝나는 국가별 Top-Level 도메인체계에 대한 것이다. 현재 .kr아래 2계층의 분류는 co(company), ac(academy), nm(network management), re(research), or(non-profit organization)의 6가지 성격별 일반도메인 분류와, 15개 시도(seoul, kyongki, taegon, cheju등)의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점유율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 연도별 도메인 현황 (95 - 97.2)

일자 : 1997. 2. 28
작성 : 한국전산원 / KR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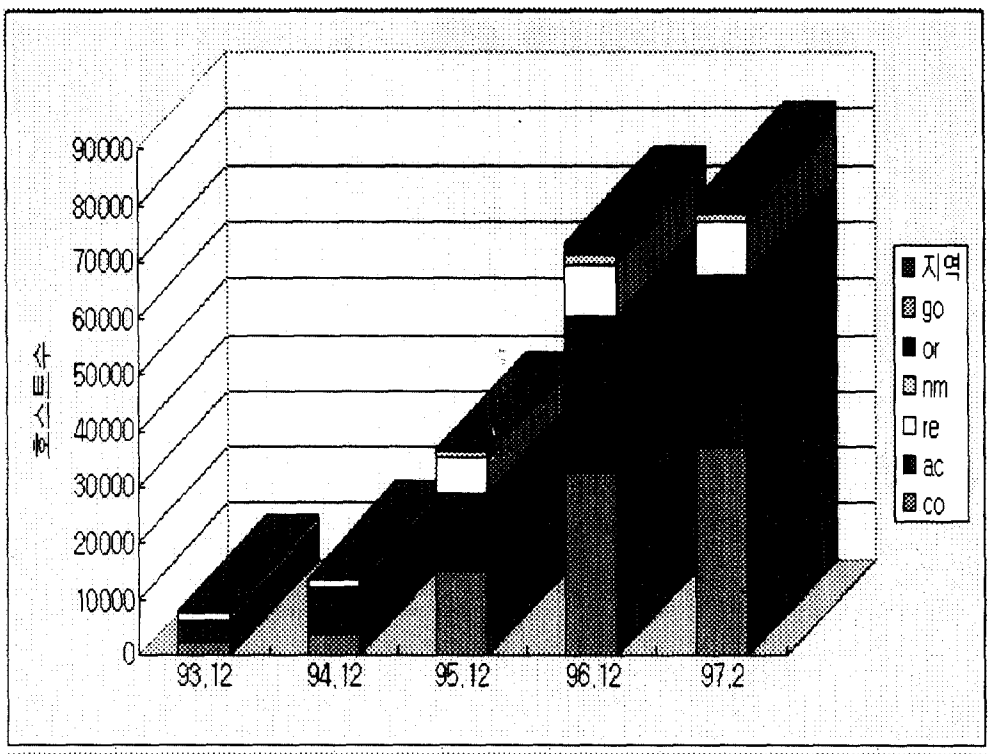
	93.12	94.12	95.12	96.12	97.2
도메인	61	192	579	2664	3390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 그림 3 〉 국내 인터넷 도메인 증가 추세
URL : http://www.krnic.net/stats/kdy97-2.gif

◆ 연도별 호스트 현황 (93 - 97.2)

일자 : 1997. 2. 28
작성 : 한국전산원 / KR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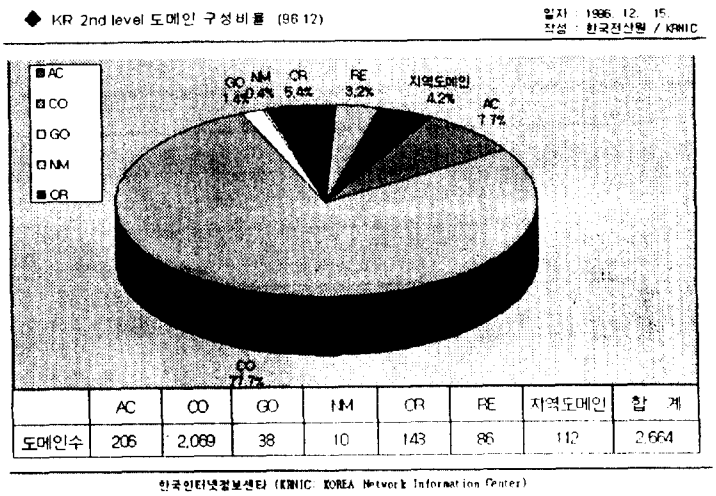
	co	ac	re	nm	or	go	지역	합계
93.12	2247	3741	1585	69	1	7	0	7650
94.12	3798	8380	1438	157	37	46	0	13856
95.12	15050	13659	6785	967	96	87	0	36644
96.12	32552	28174	9072	1571	1325	186	311	73191
97.2	37065	30581	9580	1581	1594	224	493	81118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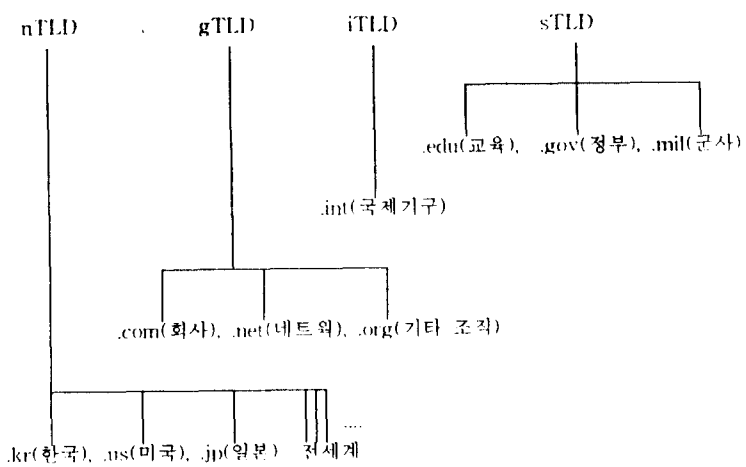
〈 그림 4 〉 국내 인터넷 호스트 증가 추세
URL : http://www.krnic.net/stats/khy97-2.gif

〈 그림 5 〉 .kr 2계층 도메인의 구성비율

URL : http://www.krnic.net/stats/96h.gif



〈 표 4 〉 글로발 인터넷의 도메인 분류



II. 인터넷 도메인 체계 및 현황

1. 글로발인터넷의 도메인 체계 및 현황

도메인은 .(dot)로 구분되는 다단계의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상위의 첫번째 계층분류를 Top Level Domain(TLD)이라 하며, 글로발인터넷의 모든 TLD는 nTLD(national), gTLD(generic), iTLD(international), sTLD(기타 special)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nTLD는 ISO-3166에 명시된 국가 분류코드 체계에 의해, 각 국가가 운영하는 도메인으로서, 하위 2계층이하의 분류는 국가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ac/.co/.go/.re/.or/.nm의 6가지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3. 국내 도메인 체계 및 등록원칙"에서 언급된다.

gTLD는 전세계 어느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며, iTLD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예 : NATO는 nato.int), sTLD는 미국내의 교육/정부/군사기관만이 사용하는 도메인이다.

2. 7개 새로운 도메인의 출현

관리능력에 벗어날 정도로 늘어가는 .com도메인의 증가를 완화시키고, 운영기관의 독점 권한을 분산시키며, 사용자들에게 .com외의 다양한 이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급증하는 도메인관련 상표/상호권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com외에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고자 하는 이슈가 제기되었다.

'96. 10월 인터넷 최상위기관인 ISOC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IAHC(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라는 조직을 발족하였으며, IAHC는 글로발인터넷의 수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97. 2.4일 "Recommendations for Administraion and Management of gTLD"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질 도메인과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방법,절차와 도메인 분쟁에 대한 대응책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새로운 도메인 추가 생성

'97. 3월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도메인은 7개로서

- .firm : business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도메인
- .store :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도메인
- .web : 월드와이드웹과 관련된 도메인
- .arts : 교양과 문화에 관련된 도메인
- .rec : 여가활동, 오락에 관련된 도메인
- .info : 뉴스나 DB등 정보서비스관련 도메인
- .nom : 개인을 위한 도메인이 있다.

이들중 .web은 AlterNIC이라는 조직이 enhanced DNS(Domain Name Server)라는 TLD 네임서버를 구축해, 이미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도메인으로서 현재 IAHC의 최종보고서에 반발해 소송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시행하기 까지는 앞으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나. 운영관리

먼저 IAHC는 신규 도메인에 대한 고객의 신청을 접수받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등록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등록기관 선정은 공정한 방법으로 세계를 7개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각 지역에서 4개의 기관을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신청서는 1개 기관에서 하나만 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신청서에 7개의 모든 도메인을 기입할 수 있고, 신청자격으로서는 USD 500,000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0명이상의 상근직원과 USD50,000의 자본금 규모를 가진 안정적인 기관으로 제한한다. 단 한 지역에 5개미만의 신청기관이 있을 경우는 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USD 300,000의 책임보험, 5명의 상근직원, USD 30,000의 자본금으로 하였다.

신청비용은 USD 20,000이며, 추후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되돌려 받게되며, 기타 제경비는 신청기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다. 향후 일정

신규 gTLD는 추이에 따라 매년 추가로 더 만들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관도 매년 20 ~ 30개씩 추가로 선정하여 궁극적으로 숫자의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머지않은 시일내에 등록기관 운영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수마감시한은 시작일로부터 67일까지이며 이로부터 31일이내에 결과를 발표한다.

3. 국내 도메인 체계 및 등록 원칙

가. 도메인 체계

현재 국내 도메인체계는 ISO-3166 국가 코드체계 분류에 의해 최상위 1단계 도메인이름은(Top-Level Domain) .kr이며, 이하 2계층 분류는 크게 일반도메인과 지역도메인, 개인도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도메인은

ac.kr : Academic Instituition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

co.kr : Company로서, 기업 및 상용기관

go.kr :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으로서 중앙정부기관

re.kr : Research Organization으로서 연구기관

or.kr : 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go나 re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nm.kr : Network Management로서 네트웍 관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도메인은 현행 행정구역 분류에 의해 15개 광역시.도로 나뉘어져 있다.

seoul.kr, pusan.kr, taegon.kr, taegu.kr, kwangju.kr, inchon.kr, kyongki.kr, kwangwon.kr, chungbuk.kr, chungnam.kr, kyongnam.kr, kyongbuk.kr, chonbuk.kr, chonnam.kr, cheju.kr

2계층이하의 3계층에서는 도메인이름을 신청하는 기관을 나타내는 영문이름이 사용되며, 여기 3계층까지를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이라 한다. 즉 일반 인터넷 이용기관들은 3계층까지를 표현하여 현재 한국전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RNIC(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한국인터넷정보센타)으로 도메인이름을 신청하여 등록되며, 이하 4계층 부터는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버 또는 컴퓨터 이름이 된다. 예를들면 한국전산원(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의 도메인이름은 nca.or.kr이 되며, 한국전산원내 웹서버의 이름은 www.nca.or.kr이 될 수 있다.

개인도메인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의 도메인이름 이하 4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ISP로 부터 부여받는다. 즉, 한국통신 KORNET에 가입된 홍길동이란 사람의 도메인이름은 kdhong.kornet.nm.kr이 될 수 있다.

나. 도메인 등록 원칙

.kr 도메인에 대한 등록 원칙은 다음의 KRNIC문서 "도메인 이름 처리 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 도메인 이름 처리 원칙 "

1) 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o 한국내에 적을 둔 공식기관, 단체로 1개를 신청
o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하여 도메인 명을 신청
o .kr 이하의 도메인 영역을 사용하고자하여 신청

2) 도메인 명은 KRNIC 신청 양식에 의거, 두번째 단계 도메인과, 기관을 상징하는 세번째 단계 도메인 명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o KRNIC은 신청기관의 도메인 명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며, 적절하지 못한 신청일 경우, KRNIC 도메인 할당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다.
o KRNIC은 기관의 신청에 의해 등록 처리된 도메인 명에 대한 저작권, 상호권 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두번째 단계 도메인 명의 할당

o .re와 .ac 등에 대하여는 연구망, 교육망, .go에 대하여는 행정망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o .nm은 ISP에 의한 사용으로 한정한다.
o 지역 도메인은 지역 도메인 실험적 시행(문서 : KRNIC-010)에 따른 운영원칙을 따른다.

4) KRNIC 도메인 업무는 KRNIC 도메인 할당기준에 의하며, 만일 해당기준이 없을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한다.

o 각 ISP/NIC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협의
o APNIC 및 타 국가의 NIC 운영절차 및 처리기준
o IANA의 STD, RFC, FYI에 의한 기준
o 기타 기술기준 또는 표준화 중인 문서

.kr 도메인은 .com 도메인과 달리 1기관에 1개의 도메인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도메인관련 상표,상호권 분쟁이나 불필요한 다수개의 도메인 확보 또는 도메인의 전매와 같은 부작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리고 한국내 적을 둔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도메인 등록을 대행해 주며 영리를 취하는 외국의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가, 한국의 유명한 이름들을 사전에 등

록해 두고, 이를 전매 또는 악용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또,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필요없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으며, 현재 인터넷 연결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도메인이름 신청기관은 반드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ISP)을 통해 KRNIC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들로 인해 아직까지 상표,상호권 분쟁이나 도메인의 전매, 악용과 같은 사례는 아직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하나의 기관이 자체 상품 홍보나 사업 또는 기타 특수한 목적에 의해 여러개의 도메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나, 또는 동호회 및 여러가지 모임에 대해 도메인을 사용하고 싶을 때, 1기관 1도메인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한시적 도메인 사용 원칙이라 하여 국제적인 프로젝트 추진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한 다음 도메인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사용자들은 이를 한층 더 확대하거나 .com 도메인처럼 아예 1기관 1도메인 원칙을 없앨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어찌보면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무제한 허용시 따르게 될 여러 가지 부작용나 관리상의 문제도 만만치 않아, 현재 KRNIC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3. 기타 도메인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의 도메인관련 체계와 원칙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2계층 도메인 분류가 ac.jp/go.jp/re.jp/ad.jp/co.jp/or.jp로 비슷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메인 등록 원칙도 1기관 1도메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com 도메인처럼 무제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계층 분류는 .au의 국가코드 앞에 com, org, net으로 3글자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com과 마찬가지로 도메인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자국의 법에 따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2계층 분류를 하지않고 .fr의 국가코드 앞에 바로 기관명이 오도록 하고 있고, 도메인 분쟁 발생시는 프랑스의 도메인 운영기관이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나라들이 조금씩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들 각각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어떤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인터넷 이용현황과 다양한 통계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은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용의 급증에 반하여 인터넷의 고속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 머지않아 인터넷의 성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멈추거나 어쩌면 인터넷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유지,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백본의 고속화와 이용자를 위한 값싼 이용요금 제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전자상거래나 정보제공 DB 구축을 육성하며, 인터넷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 차단 도구와 해킹에 대비한 국산 보안도구의 개발을 추진하며, 이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반 법.제도적인 대책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웹 On-line Data
- http://www.nic.or.kr
- http://www.nw.com
- http://www.mit.edu
- http://www.genmagic.com
- http://www.nua.ie
- http://www.netcraft.com
- ftp://www.nic.or.kr/krnic/docs/

2. KRNIC 도메인등록관련 문서 4종, 한국전산원
3. 인터넷 월드 잡지 '96. 12월호

송 관 호

-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 한양대 전자공학과 대학원(석사)
- 광운대 전자공학과 대학원(박사)
- 1979년~1984년 : 금성전선(주) 정보시스템 과장
- 1984년~1987년 : 데이콤 미래연구실장
- 1987년~1992년 : 한국전산원 정보통신표준부장
- 1992년~1994년 : 한국전산원 시스템기술부장
- 1995년 1월~12월 : 한국전산원 국가망구축실장
- 1996년 1월~현재 : 한국전산원 표준본부장
- 1987년~1993년 : 공진청 JTCI 표준화 위원
- 1987년~1994년 : 체신부 전기통신 형식승인 위원
- 1994년~현재 : 공보처 해외정보망 자문위원
- 1987년~현재 :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홍보이사
- 1995년~현재 : 서울지방검찰청 정보범죄센터 자문위원, 한국정보과학회이사,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 1997년 3월~현재 :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통신프로토콜, 분산시스템 등

하 상 용

- 1987년 2월 : 한양대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 1987년~1989년 : 대우통신 컴퓨터연구부 연구원
- 1990년~1995년 3월 : 대우통신 주임연구원
- 1995년 4월~현재 : 한국전산원 주임연구원
- 1997년 3월~현재 : 한국전산원 정보연계센타 주임연구원